"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지요"

식목일 대통령 표창 '조림왕' 박형만씨

보성 존제산에 43년간 62만 그루 키워

"사람은 제 살길 찾아다니면서 무한경쟁을 펼치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다. 나무는 한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경쟁을 펼친다. 30년 동안 무럭무럭 자란 나무도 한순간 방심하면 죽는다. 좋은 자리로 옮겨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무.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펼치는 경쟁…. 이를 교훈 삼아 나는 살아왔다."

나무는 한 자리서 무한경쟁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박형만(75·광주시 북구 임동)씨의 조림(造林) 일기 중 한 대목이다. 지난 43년 동안 나무와 함께 살며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존제산(尊帝山·해발 704m)을 '숲의 왕국'으로 만든 박씨는 산림보호에 앞장서 온 이 지역의 모범 독림가(篤林家)다.

3일 그의 약국을 찾았다. 약국 한 켠에 마련된 사무실은 각종 산림서적으로 가득했다. 백발에도 꼿꼿한 자세를 지켜온 그는 곧게 자란 노송(老松)을 연상케 했다. 나무 얘기를 꺼내자 그의 얼굴에는 봄을 맞은 나무 마냥 생기가 돌았다. 박씨가 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66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약국을 하던 박씨는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한 도청 직원으로부터 '황폐해진 국토'에 대해 들었다. 광복 후 한반도는 일제치하 수탈과 전쟁, 무분별한 도벌 등으로 황폐하고 헐벗은 민둥산 천지였다.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고 있던 박씨는 국토 녹화사업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곧장 나무심기에 뛰어들었다.

국유지인 존제산 자락 127ha를 임대한 박씨는 지난 1967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전라선 열차를 타고 광주와 보성을 오가며 삼나무와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30만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그해 극심한 가뭄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枯死)했다. 이듬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각종 산림서적을 들추고 산림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해송·현사시나무·밤나무·오리나무 등 열 두가지 나무를 다시 심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존제산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 갔다.

산림자원 조성의 공을 인정받은 박씨는 1979년 '전국 조림왕'으로, 이듬해엔 '모범 독림가'로 선정됐다. 제64회 식목일을 앞둔 4일엔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젠 숲 가꿀 인재 키울터"

박씨의 나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역 조림사업은 물론 무등산 보호활동, 보성 만수동 골짜기 숲 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교육 및 연구 등 끊임없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

황폐화된 산에 푸른 기적을 일군 박씨. 그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다.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보살필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박씨는 "나무를 심는 것은 꿈을 심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진작 포기했다. 어려운 일이지만, 늘 나무와 함께 숨 쉴 수 있어 정말이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 조림왕' 박형만(75)씨가 3일 광주시 북구 임동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내 집무실에서 지난 1967년~2001년까지 쓴 조림일기를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능 중요개념 반복 출제한다

교육과정평가원 밝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거에 출제했던 문항이라도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룬 것이면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반복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을 반복 출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출제 원칙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그동안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를 우려해 반복 출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통상 수능이 끝난 뒤에는 '어떤 문항이 어느 참고서에 실린 문항과 비슷하다'는 식의 기출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평가원의 수능 출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렇다 보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물론 과거에 출제한 문항을 똑같이 내는 일은 없겠지만 문항의 소재나 질문의 포인트 등을 달리해 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3억 가로챈 인터넷 매체 기자 등 구속

광주지검은 3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가로 챈 모 인터넷 매체 기자 송모(47)씨와 광주 모 대학 겸임교수 정모(45)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의류 도·소매업체 대표인 송모(47)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세 국회의원은 물론 군수와 시장도 잘 알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해결해 줄테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 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그러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수협 '선거 내분' 심화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전남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당선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치러진 제 17대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상현(61) 현 조합장이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목포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어졌지만 선거와 관련된 판결이 아닌 만큼 김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3일 결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김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당초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다 조합원 지위가 박탈돼 하지 못했던 최모(51)씨 등 12명이 법원에 제기한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어민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에 이어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오후 목포수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합원 제명 처분이 정당한 업무 행위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 박탈은 수협법과 수협중앙회의 부실 조합원 정비 지침에 따른 것으로 조합장 선거 이전에 늘 해왔던 일상 업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의 시위에 맞서 목포수협 소속 어촌계 어민 등 2천여명은 오는 6일 오전 목포수협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조합원간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5·18묘지에 심은 정이품송 장자목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사무소(소장 김명한) 직원들이 3일 오전 묘지 내 잔디밭에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속리산 정이품송(正二品松)의 장자목(長子木)을 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특별 분양한 이 장자목은 정이품송을 부계(父系)로, 강원도 삼척 준경숲의 소나무를 모계(母系)로 인공 교배해 얻은 것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정상화 결정 23일로 또 연기

사분위 회의, 정이사-임시이사 주장 '팽팽'

광운대는 임시이사 체제로

정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운영 정상화를 기대해온 조선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방안 결정이 오는 23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광운대학교는 우려했던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2일 조선대,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 회의를 열고, 광운대를 제외한 3개 대학의 임시 이사 파견 여부에 대해 오는 23일 재 회의를 갖기로 했다.

사분위는 이날 4개 대학 중 먼저 광운대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키로 하고, 7명의 임시이사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대 등 나머지 3개 대학의 임시이사 재파견 여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조선대에 대한 '정이사 선임론'과 '선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임론' 등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사분위원들은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부정적인 지역여론과 학교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기 위해 이사 추천 명단을 사분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사분위는 이를 토대로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심의해 왔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교가 이미 정상화돼 학사운영 등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비정상적인 임시이사를 왜 파견하려 하는 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조선대 구성원과 지역민 모두가 정이사 선임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임시이사 파견만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험사기범들 협박 천만원 뜯은 2명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3일 보험사기 사실을 알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임모(38)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보험사기극 벌인 택시기사 김모(29)씨와 여대생 한모(19)양 등 8명에게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김씨 등이 지난해 5월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60만원을 타낸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영화 '타짜' 처럼 꽃뱀 동원 사기도박

쌍나팔

○…영화 '타짜' 속 장면 처럼 '꽃뱀'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펼친 일당 7명이 경찰에 덜미.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유모(여·52)씨 등 여성 3명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원산동 P식당을 찾은 주모(60)씨에게 접근한 뒤 도박판을 벌여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유씨 등은 일당인 서모(58)씨로부터 주씨가 "돈이 많다"라는 말을 미리 전해듣고 공모한 뒤 주씨와 서씨가 식당에 들어서자 각본대로 서로 모른 척 하며 주씨에게 "술이나 함께 마시자"며 접근, 도박판으로 유인.

○…경찰은 이날 사기도박판 총책인 신모(63)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신씨의 사주를 받고 주씨를 도박장에 끌어들인 유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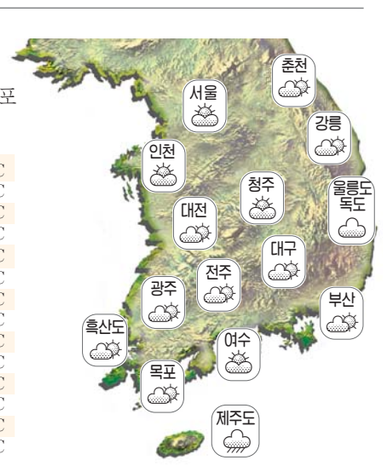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6분 해짐 18시 56분 달뜸 13시 16분 달짐 02시 51분

꽃구경 가볼까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포근하겠다.

광 주	흐린뒤 맑음	6/17℃
목 포	흐린뒤 맑음	6/13℃
여 수	구름 많음	7/14℃
완 도	흐림	6/15℃
구 례	흐린뒤 맑음	3/15℃
해 남	흐림	4/15℃
장 흥	흐림	4/16℃
고 흥	구름 많음	4/16℃
순 천	흐린뒤 맑음	6/16℃
영 광	흐린뒤 맑음	3/13℃
진 도	흐림	4/15℃
전 주	흐린뒤 맑음	4/15℃
남 원	흐린뒤 맑음	2/16℃
흑산도	흐린뒤 맑음	6/11℃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	0.5~0.5m
먼바다	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0.5~0.5m
먼바다	서~북	0.5~1.0m

	밀물	썰물
목포	09:39 21:57	01:59 15:37
여수	05:05 17:37	11:39 23: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날 씨						
최저/최고	5/18	4/19	6/21	7/20	7/21	7/22

포근한 주말…"나무심기 좋아요"

광주 기온 5~18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포근해 나무심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4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3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식목일인 5일도 광주·전남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5~18도로 예상된다.

한편 기상청은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대체로 평년보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

빚 고민 일가족 3명 동반자살

해남 "채권자에 미안" 유서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부부가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했다.

2일 밤 9시께 해남군 해남읍 한 건물 2층 김모(40)씨의 집 안방에서 김씨 부부와 아들(9)이 숨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 최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부터 김씨 부부가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연락이 되질 않아 가봤더니 가족이 모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집 안방엔 연탄이 들어있는 높이 80㎝의 연탄 화덕이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해왔었다.

김씨의 부인(40)은 숨지기 직전 "가족간 갈등을 겪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갚을 돈(8천만원)과 받을 돈(1억5천만원)이 있다. 빚 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A4용지 다섯 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